

문화

# 30년전 여대생 찬불가수 스님으로 다시 무대에

## 천재일우 콘서트 여는 백석사 주지 수월 스님

30년전 동국대 철학과에 다녔던 여대생은 반야심경에 곡을 붙인 노래로 화제를 모았다. 6년 동안 세 장의 찬불음반을 냈고 그때마다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또 한달 가량 진행했던 장기 공연은 연일 만석을 이루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날 홀연히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출가를 했다. 그렇게 선방수좌로 보현암 불영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을 하는 동안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날 스님은 뒷산으로 표행을 갔다가 산천초목이 노래를 들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잊혀졌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다.

여대생 가수는 이제 수월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30년전 그때의 노래를 다시 부르며 무대에 오른다. 수월 스님의 반야심경 콘서트 '천재일우'가 10월 15일 저녁 7시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 예경제불가, 백년을 살자라도, 발원문, 판소리 '발심수행장', 자기, 그 누가, 나, 오소리, 작은 접시, 부처님 마음, 뮤지컬 '님의 침묵', 우리말 반야심경 등을 공연한다.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와 출가를 결심하고 해인사로 출가를 했죠. 누구에게도 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날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나와 포교당을 열고 지난해 음반을 내게 되었죠. 물론 신디사이저로 편곡했던 당시의 곡들을 클래식으로 편곡해 대중들이 편하게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뮤지컬 '님의 침묵'은 30년 전 공연 당시 매우 화제가 되었던 공연이었죠. 그때의 대본을 수정해 지역 음악인들과 함께 새로운 무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30년 전 여대생에서 수월 스님으로 노래를 부르게 된 스님의 소감은 어떤까? "오랜 시간을 쉬었다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세상에 100% 좋은 일도 없고 또 나쁜 일도 없잖아요. 예전에 제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고음의 느낌이 들기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엔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살아온 세월만큼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목소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좀더 편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스님은 당시 동국대 철학과 학생으로 작곡가 유승엽 씨의 공연을 보러갔다가 1984



수월 스님의 반야심경 콘서트 '천재일우'가 10월 15일 저녁 7시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여대생 가수는 이제 수월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30년전 그때의 노래를 다시 부르며 무대에 오른다.

추가후 30년 만에 음반 발매 찬불가 판소리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 공연 무대에 올라 10월 15일 부산 KBS홀서 공연



천재일우 공연 포스터

년 데뷔 음반을 내기에 이르렀다. 당시 우리말로 된 '반야심경'은 세간에 화제를 모았다. 각종 일간지에서 유명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대학생이 부른 이색적인 종교음악이라는 타이틀로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후 2집에서는 법정 스님 <진리의 말씀> 중 10편을 뽑아 곡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도 등불, 백년을 살자라도 등은 크게 화제가 되었다. 3집은 수안 스님의 시에 곡을 붙인 '오소리'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또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

"텔레비전 뉴스와 4대 일간지에 소개가 될 만큼 대대적인 관심을 모았어요. 불자뿐만 아니라 비불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정도로 주목을 받았죠. 찬불가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오소리'는 제가 출가한 후에 드라마 주제곡으로 사용될 만큼 인기를 모았다고 해요. 특히, 제 음반은 해적판이 나올 정도였는데 당시 해적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증거였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음악으로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 BBS에서 '물 같이 바람 같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스님은 아직 불교음악이 대중들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으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방송을 진행하며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찬불가 중에 귀가 번쩍 뜨이는 곡은 아직도 많이 없는 듯 보여요. 음성포교는 부처님 말씀 쉽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또한 음악은 대중을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포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불자 비불자를 떠나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불교음악이 아직은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앞으로 좋은 곡들을 만들어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스님은 대중들에게 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공연도 기획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이번 공연은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사정상 하루밖에 공연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곡들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장기 순회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인간 당내대로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01)930-993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내일 아침 어찌 다시 험한 세상 밟으랴

푸른 소나무 같은 선비정신

집필자 김종직의 시는 한가한 선비들의 절 나들이 풍경이다. 훈훈한 바람에 보리가 익어가는 4월쯤이 시간적인 배경이다. 제목에 언급되었듯이 그 나들이 길의 주역에는 군수가 끼여 있다. 직지사사 속해 있는 김천 지역의 군수와 어울리는 지인 들일지나, 고위급의 행차다. 그래서 스님은 손님을 맞이하고 새벽에는 죽을 쑤어 바친 듯하다.

선비에게 절에서의 하룻밤은 풍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그 속에 고매한 정신의 탐구가 있으니 놀이가 전부인 것만도 아니다. 특히 김종직은 직지사사에서 가까운 선산에서 아버지 김숙자로부터 글을 배우며 자랐다. 김숙자는 고려 유학의 맥을 이은 길재선생의 제자다.

아무튼 김종직은 이날 직지사에서 어릴 적 글 읽던 추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무성한 소나무 삼나무 숲에 자신의 선비정신을 빚었다고 있다. 30년 전의 글 읽던 학동이 이제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학자가 되어 소나무 같은 기상을 떨치고 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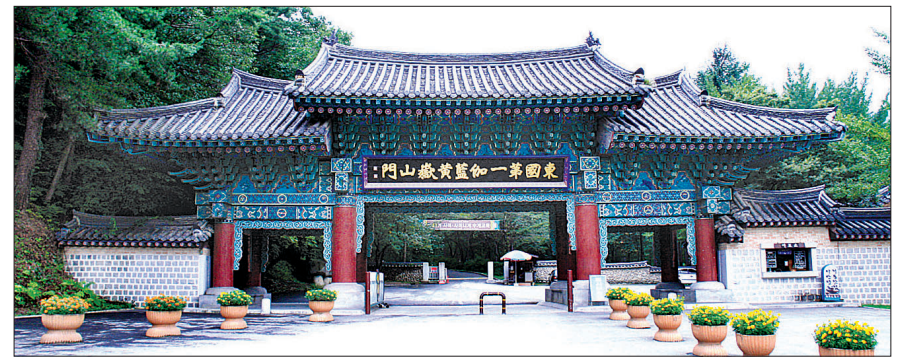
동화신재구미진(東華新載久迷津) 금일선방안각진(今日禪房岸角巾) 상후오호탄탈업(霜後烏呼彈脫業) 월중앙와점생린(月中昂瓦漸生鱗) 전반향세한경축(蟾蜍香細寒更促) 불담등흔연어진(佛榻燈昏軟語眞) 만이석천청봉배(滿耳石泉清不寐) 명조기내담홍진(明朝奈踏紅塵)

10년 동안 동화에서 오래 길을 헤매다가 오늘날에 선방에서 각건이 비스듬하네. 서리 뒤의 오비는 잎이 모두 젖는데 달빛 속의 원앙은 처음 비늘을 번득인다. 전반의 향이 쇠잔하여 찬 밤을 계속하고 불타 등불이 어두운데 부드러운 말이 잔영에네. 귀에 가득한 등샘물 소리 맑아 잠 못 들거니 내일아침에어찌다시 험한세상을밟으랴.

<속동문선(屬東文選)> 제8권에 전하는 이 칠언율시(七言律詩)의 제목은 '속직지사어선원동부(宿直直寺與善源同賦)'이다. 조위(曹偉 1453~1503)의 작품이다. 조위는 김종직과도 상당히 친교가 두터웠다. 그는 7세 때 이미 시를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성종 때 실시한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첫 번째로 선발되기도 했다. 사가독서란 임금이 직접 명하여 휴식을 취하며 독서에 전념토록 하는 일종의 특별휴가 제도로 상당한 학문과 문장의 성취를 이룬 유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영광이기도 했다. 조위는 국문학사적으로 최초의 유배가사의 효시로 꼽히는 '만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39 직지사 ㉞



직지사로 들어가는 '동국제일 가람 황악산문'. 김종직은 직지사서에서 소나무·삼나무 숲에 자신의 선비정신을 빚대어 시를 지었다.

분가(萬憤歌)를 지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 직지사의 밤풍경 그리고 깨우침

시를 보면 조위는 김선원과 함께 직지사를 방문해 유숙하며 시를 지었다.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조위는 상당히 불교에 호의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첫 구절 '10년 동안 동화에서 오래 길을 헤매다가'라는 표현은 유학의 길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고 다닌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여간 당당하지 않다. 동화(東華)란 유학을 하는 관료라는 의미다. 당나라 때 한림학사(翰林學士)가 처음 임명될 때에 동화문(東華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화'는 유학자의 등용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유학의 길을 떠들다가 직지사로 온 시인이 직접 참선에 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함련과 미련에서 시는 선방에 앉아 수행하는 자의 눈으로 전개된다. 서리 뒤로 나뭇잎이 다 지고 원앙처럼 암수가 어울려서 기왓장은 달빛을 받아 물고기 비늘처럼 번들거린다. 그렇게 밤은 깊어 그윽하게 타들어 가는 향이 더욱 밤을 재촉하고 탐의 등불도 어두워지는 시간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점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종의 깨우침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게 직지사의 밤이 깊어 새벽을 향

해 가는데, 등샘물 소리 가득한 직지사의 밤 풍경 속에서 조위는 내일 아침 다시 번뇌로 들끓는 세상으로 갈 일이 까마득하 기만하다.

이월금릉설반소(二月金陵雪半消) 신파명옥출송교(新波鳴玉出松橋) 우연승흥래유처(偶然乘興來遊處) 계영선운만학호(桂影穿雲萬鶴遙)

이월의 금릉 당눈은 반쯤 녹았고 새 물길 옥 같은 소리로 소나무다리를 흐르네. 우연히 흥겹게 놀 곳을 찾아오니 계수나무 그림자 구름을 뚫고 골짜기 가득 노래 소리일세.

16세기의 문신으로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던 이정(李靖 ?~?)의 문집 <구암선생문집(龜巖先生文集)> 제1권 속집에 전하는 칠언절구다. 제목은 '유직지사 정미(遊直指寺 丁未)'로 되어 있으나 정미년에 직지사서에서 묵으며 쓴 것이다.

계절적인 배경은 2월이다. 아직 추운 때인데 직지사가 있는 금릉 땅에는 눈이 반쯤 녹았다는 서술로 시가 시작된다.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바로 시냇물이 흘러 소나무 다리 아래로 옥구슬 같은 소리를 내며 흐른다는 표현이 나오니, 눈 녹아 흐르는 물소리로 청각을 자극한다. 물론 '눈이 녹은 물'은 무명번뇌를 버린 뒤의 깨달은 경지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흥겹게 놀 만한 곳을 찾아 온 풍류를 내비치며 직지사 계곡의 봄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 즉 본래불성을 향해 곧바로 손가락을 가리킨다는 직지사. 진리의 원음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수행의 역사로 이어온 직지사서에서 선비들은 자신의 '그릇'에 알맞은 나름대로의 견처(見處)를 확보했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통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통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 운반차 이오나 공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 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이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67권째 저서 출간!

**바로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뽕>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